

6. 10만세시위투쟁에서 차지하는 청년학생들의 지위

오 순 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력사를 보아도 앞장에는 언제나 청년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감옥도, 죽음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사들이였다. 조선의 청년들은 3.1인민봉기가 발발했을 때에도 선봉결사대로 나섰고 6.10만세시위운동이 서울의 거리를 휩쓸 때에도 주력으로 등장하여 애국적인 구호들을 고창하였다.》
(《김일성전집》 제98권 76페이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 청년학생들은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켜 그들을 반일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당당한 주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년학생들은 1919년 3.1인민봉기에서의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당당한 주력의 지위를 차지하고 힘차게 싸웠다.

무엇보다먼저 청년학생들은 1920년대 전반기에 일제의 식민지통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는 조직들을 못하고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일투쟁을 벌림으로써 1926년에 벌어진 6.10만세시위투쟁에서 주력의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충분한 투쟁경험을 쌓았다.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3.1인민봉기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1920년에 들어서면서 종래의 《무단통치》대신에 《문화통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에서의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무단통치》를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개악한것으로서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략탈,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기 위한 책동이였다.

전국각지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

대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대중투쟁이 날로 강화되었으며 청년학생들도 자기들의 조직을 못하고 반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20년부터 1925년말까지의 근 5~6년 사이에 전국각지에 847개의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그가운데서 학생조직은 185개나 되였다.

1920년 3월 20일에 봉건적인 인습의 타파, 녀성들의 보통교육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 조선녀자교육협회, 같은해 5월 9일 한성(서울) 시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출신 중등학교정도이상의 남녀학생 2만명을 회원으로 망라한 조선학생대회가 조직되었다.

* 조선학생대회는 학생대중의 단결 및 친목의 도모, 조선물산의 장려 등을 표면에 내걸고 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린 단체였다.

한편 1923년 2월 9일 전문학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조선학생회는 조직초기 전문학교련합학술대강연회를 개최한데 이어 그다음해부터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일반인민들을 위한 음악회, 체육대회 등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적극 벌려 전국의 학생들은 물론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았다.

1924년 9월 11일 한성시내의 일부 학생들을 망라한 조선학생총련합회, 1925년 5월 사회과학의 연구, 민족본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조선공학회가 결성되었다.

1920년대 전반기 학생조직들가운데서 주요한 역할을 한것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였다. 이 조직은 공학회의 해산후 거기에 소속되었던 일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한성에서 창립되었는데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계몽을 비롯한 중요한 사회적문제들을 자기들의 사업내용

으로 채택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0년대 후반기 한성 시내의 학생들의 투쟁을 선도한 단체로서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날 당시 조직성원이 500여명이나 되었다.

당시 활동한 청년학생조직들은 학생들과 인민들속에 선진과학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학술강연회를 자주 개최하였으며 이 기회에 반일선전을 진행하여 우리 인민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순종하는 《충량》민, 몽매인으로 만들려는 일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저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학교들에서 조선어와 조선력사, 조선지리의 교수를 금지 및 제한하고 일본어사용을 강요하는 등 교육에서 철저한 민족차별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적인 모든것을 거세말살하고 조선민족을 《황국신민》화하려는 일제의 악랄한 책동은 청년학생들의 민족적울분을 폭발시켰다.

청년학생들은 조선학생들에 대한 일본인 교장 및 교원들의 민족적모욕과 구타반대, 교육체계 및 내용에서의 민족차별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벌렸다. 일제가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년학생들이 단행한 동맹휴학건수는 1921년에 33건, 1922년에 52건, 1923년에 57건, 1925년에 48건에 달하였다.

이처럼 청년학생들은 1920년대 전반기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반일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조선청년의 기개를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그후에 벌어진 6.10만세시위투쟁에서 주력으로 나설수 있는 투쟁경험을 쌓았다.

다음으로 청년학생들은 1926년 6.10만세시위투쟁준비와 투쟁전과정에서 주도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은 3.1인민봉기에 이

어 1920년대에 벌어진 가장 큰 반일투쟁의 하나였다. 이 투쟁은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로서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왕이었던 순종의 사망과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났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부르조아민족주의가 더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수 없다는것을 절감한 우리 인민들속에서 새 사조를 지향하는 선진사상이 급속히 보급되었다. 부산부두로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롯한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높아지는 반일투쟁기세에 편승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대중적인 반일투쟁을 벌릴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사업을 다그쳤다. 그들은 6.10투쟁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공산당조직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자기력량을 보존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대중을 이 투쟁에 인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시위투쟁준비에 여러 단체들을 망라시켰는데 특히 3.1인민봉기에서 선봉적역할을 논 청년학생단체들과 련계를 맺고 시위투쟁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위투쟁준비위원회에 끼여있던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제에게 비밀이 루설되고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우선 초기공산주의자들의 파쟁으로 투쟁이 중도반단될 위험에 직면한 속에서도 청년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근기있게 시위투쟁준비를 다그쳤다.

특히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조직성원들을 한성 시내의 각 학교들에 파견하여 수많은 학생들을 규합하도록 하였다.

1926년 6월 6일에 있는 제2차 공산당사건으로 공산당인물들이 대대적으로 투옥되고 시위투쟁준비가 파탄될 위험이 조성

된 속에서도 6.10만세시위투쟁이 초기의 계획대로 진행될수 있는것은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시위에 쓰일 격문, 선언서 등이 일제의 탄압으로 압수당하자 자체로 격문과 선전물들을 준비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성원들은 《2천만동포의 원수를 구축하자, 피의 대가는 자유다, 조선독립 만세!》라는 격문을 만들고 명함인쇄기 1대를 구입하여 약 1만매의 격문을 인쇄하였으며 이밖에 200여개의 기발과 《조선독립 만세!》라고 쓴 기발 30개를 만들어 시내의 각 학교들에 배포하면서 투쟁준비를 과감히 벌려나갔다. 이들이 만든 인쇄물들은 중앙고등보통학교, 연희전문학교, 근화여자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

한편 사립중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인쇄한 격문들도 6.10만세시위투쟁에 이용되었다. 당시 신문이 《한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와 시내 명동 배재고등보통학교를 면밀히 수색한 결과 5일부 광화문 우편국의 공인이 박힌 발송자의 성명이 없는 등사판인쇄물을 다량 압수하였다는데 그 인쇄물은 내용이 매우 격렬한 문구를 기록한 문서로 6, 7일 양일간에 시내 사립중등학교에 수집종이 배포된 형적이 있다 하여 동서(종로경찰서-역사)에서는 그 문서를 발송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 문서를 인쇄한 기계를 발견하려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중이라더라.》고 한 자료 등은 당시 학생들이 인쇄한 격문들이 학생들의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반일투쟁이 계획되고있음을 사전에 알아낸 일제가 한성, 신의주, 인천, 평양 등 전국각지에서 무려 105명을 체포함으로써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시위투쟁지휘부는 실제상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주

저앉지 않고 시위투쟁준비를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일제의 대검거선봉으로 한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들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한성의학전문학교를 비롯한 전문학교 학생 40여명이 체포되고 많은 격문들이 압수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하지만 청년학생들은 시위투쟁준비사업을 재조직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마침내 6월 10일 거족적인 반일투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청년학생들은 6.10만세시위투쟁 과정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년학생들은 면밀한 준비를 갖추는데 기초하여 6.10만세시위투쟁을 벌렸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순종의 장례식이 진행된 한성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으며 6월 10일 한성은 그 전날 새벽부터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30여만명의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이것은 순식간에 반일시위투쟁을 벌릴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연도의 량측에는 2만 4 490여명에 달하는 중등정도이상의 학생들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서있었다.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은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인민들의 앞장에 서서 《조선독립 만세!》, 《일제를 구축하자!》, 《황포한 총독정치를 구축하고 일제를 타도하자!》, 《학원의 민주화를 보장하라!》, 《학교의 공어는 조선어로!》 등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는 반일적인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군중을 반일시위투쟁으로 추동하였다. 학생청년들의 만세시위투쟁은 종로 3정목 단성사앞, 판수교부근, 한성사범학교부근, 훈련원부근, 동대문부근, 신설리부근, 동묘부근의 8개소에서 벌어졌다. 당시 《동아일보》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기초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8개소에서 발기》, 《철웅성갈

은 경제망속, 각처에서 조선○○만세 고창》이라는 제목으로 6월 10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성에서의 6.10만세시위투쟁 소식을 광범히 소개선전하였다.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일투쟁은 한성 시내의 여러곳에서 6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 련속적으로 벌어졌다. 오전 8시 30분 종로3정목 단성사앞에서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학생 30~40여명은 《조선독립 만세!》를 높이 부르면서 약 1 000여장의 격문과 기발 30여개를 살포하였다. 연희전문학교 학생들도 이에 호응하여 시위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학생들의 반일시위투쟁은 한성에서뿐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도 벌어졌는데 전라북도 고창고등보통학교 학생 50여명은 6월 10일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세시위투쟁을 벌렸다.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6.10만세시위투쟁이 진압된 후에도 투쟁을 다시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나갔다. 배재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한성 시내 7개 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에 쓸 격문까지 수많은 인쇄하였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질겁한 일제는 배재고등보통학교에 불의에 달려들어 수많은 격문들과 인쇄기들을 압수하고 20여명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체포투옥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26년에 청년학생들의 주동적이며 선봉적인 역할에 의하여 힘차게 전개된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의 민족적기개를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는 데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청년학생들은 6.10만세시위투쟁에서 당당한 주력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 로동계급의 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당시 국내 각지에서는 일제의 식민지적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파업과 소작인 등 대중적 진출이 강화되고 있었지만 학생단체들은 학생운동의 특성만을 운운하면서 근로청년들과 련계를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였다. 또한 각 지방에서 활동하던 학생단체들과의 련합을 실현할 대신 조선공산당의 영향밑에 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만이 소극적인 투쟁으로 만족하였다.

한편 이 투쟁을 지도한다고 자처해나선 조선공산당 자체가 파벌싸움에 눈이 멀어 6.10만세시위투쟁을 자파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싸움마당으로 만들다나니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피를 흘리며 용감하게 싸웠지만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종파의 해독성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단결하여 투쟁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러자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6.10만세시위투쟁은 비록 일제의 야수적 탄압으로 실패하였으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당당한 주력을 이루는 청년학생들의 지위를 뚜렷이 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한 반일애국투쟁에로 대중을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